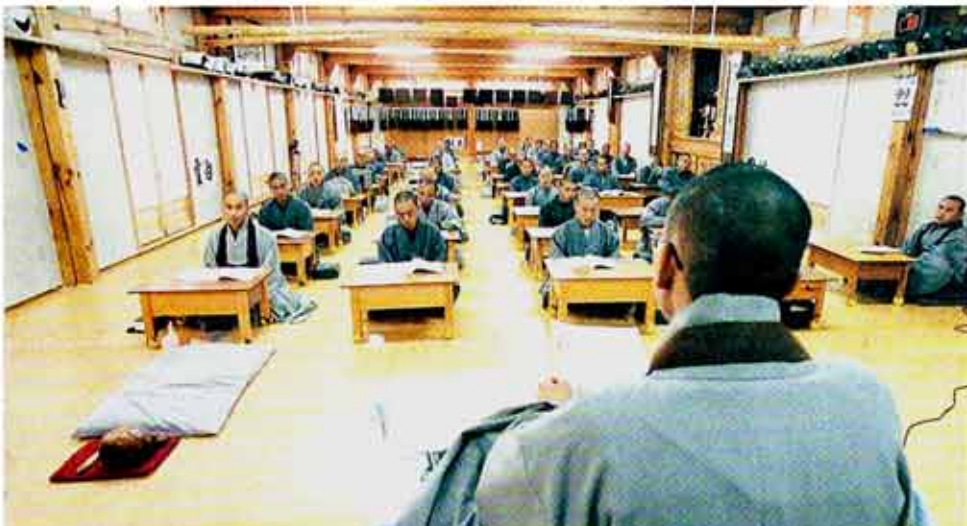


道이고 德 차고 仁 두르고 義 지고 戒 받들고



부처님의 뒤를 따르려는 굳은 신심으로 입산한 초발심자들의 절 생활은 행자생활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조계종 합동 행자교육의 모습.



행자교육 수료후 사미·사미니들은 승가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에서 기본교육을 받으며 스님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쌓아야 한다. 사진은 승가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미들. 99년부터 사미(니)들은 오조가사를 수취하지 못하고 민의를 수취하고, 또 올해부터 옷의 깃과 소매에 가사색 띠를 두르도록 하였다.



기본교육 4년을 마치면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비구(니)계를 수취하는 그때부터 스님으로서 상구보리 하 화생생 수행길로 나선다. 사진은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거행했던 조계종 단일 구족계 수계식.

행자에서 스님되기까지

조계종 6~27일 송광사서 합동 행자교육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권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라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라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고 해서이다.” <선가구감>

승보종찰 송광사. '도(道)를 머리에 이고 덕(德)을 허리에 차고 인(仁)을 두르고 의(義)를 짊어지고 계(戒)를 받들다가 죽기(치문경후)를 다짐한 출가자 182명이 합동 행자교육을 받고 있다. 행자교육 입재날인 6일은 마침 부처님출가절(을 2월 8일)이었다. 부처님이 미소를 머금고 내려다보시는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백팔참회로 시작했다. '세상의 형상을 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반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한 남행자 102명, 여행자 80명의 모습에 생로병사의 인생고를 벗어나고자 새벽별을 보며 출가의 길로 나선 신타타 태자의 모습이 걸친다. 고불식과 서원(齋願)에 임하는 행자들의 눈빛은 물처럼 여여하면서도 금강과도 같이 굳었다.

출가사찰서 5개월이상 생활후 의식·교리등 23일간 합동교육 사미(니) 된후 대학·강원서 기본교육 4년 받아야 한다 단일 구족계 수계산림 통해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수지

조계종에서 합동 행자교육을 시작하지 올해로 8년째, 이번이 14기다. 봄 가을 두 번째 합동 교육을 시킨다. 23일간 매일 백팔참회, 사미(니)율의, 상강례를 하고 사시마지, 식당작법, 위외문, 천수경독송, 정근, 예배안행, 예식의배 작법, 보현행인품 독송 등 기본적인 것을 익힌다. 이미 출가사찰에서 숙지했지만 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기본의식의배 등을 새롭게 배운다. <금강경>, <조계종사>, <교육정책> 등의 특강도 들린다. 매일 백팔참회로 시작해 백팔참회로 마감하며 초발심의 의지를 확인한다. 3월27일 3찬배로 회향하며 사미·사미니 수계를 받는다.

합동행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출가본사에서 5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해야 한다. 통도사는 6개월 해오던 행자생활을 내년부터 1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봄가에는 행자때 지은 공덕으로 평생 중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 초발심때의 구도 의지가 그만큼 순일하고 굳세다는 뜻이다. 큰 절에 가서 주의깊게 살펴보면 삭발은 하였으나 가사색 옷(여행자는 주황색)을 입고 침묵을 지키며 부처님께 일체 불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바로 행자들이다. 그러나 출가를 원한다고 절에서 금방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입방원서를 내면 출가대장부의 그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굳센지 1주일간 유예기간을 둔다.

해인사의 경우 일주일동안 속복을 입은 채 침묵을 지키며 선재로 인사만 시킨다.

이 기간은 입산자로서는 자신의 출가결심을 재삼 확인하는 기간이고 인주실에서는 과연 출가자로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지켜보는 기간이 된다. 큰 절의 경우 1년에 40~50명씩 입산하지만 30% 가량이 되돌아간다. 요즘은 출가자들의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경향이고 또 학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계종 14기 행자들도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30대, 40대, 10대순이다. 학력은 고졸이 60%, 대졸이 35%로 고졸이상이 95%를 차지한다. 사실 나이, 학력이나 지위란 일단 출가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출가하면 나이, 학력, 지위 등이 모두 무(無)가 된다. 철저하게 무소유로 들어가며 비구(니)계를 받은 날로부터 세는 법랍으로써 위계가 정해진다.

사미, 사미니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고 예비승이다. 옷도 울레부터는 차별화되어, 깃과 소매끝에 가사색 띠를 대야 한다.

사미(니)들은 승가대,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등 어느 한 곳의 교육기관을 거처며 기본교육 4년을 받아야 한다. 승가대(강원)는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운문사 등 비문 17개가 있다. 큰 스님 회상에서 선지식들에게 경전을 배우고 참선, 계율을 익힌다. 대중생활을 통해 대중에 수순하며 법다이 생활함을 익히는 것이다. 1학년적인 사미(니)과에서는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을, 2학년적인 사미(니)과에서는 서장 선유육조단경 등을, 3학년인 사미(니)과에서는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등을, 4학년인 대교과에서는 화엄경 등을 배운다. 특강형식으로 '선종사' '불교사' '세계문화사' 등 다양한 교양·선택 과목과 외국어도 배운다. 이렇게 4년을 지내면 단일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수취하고 '상구보리 하화생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본격적인 구도자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인욕(忍辱)과 하심(下心)'. 수행자로서 광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이다. 행자때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인욕과 하심을 쌓기 위한 것이다. 행자생활에서 걸어진 길을 묵묵히 따르기 위한 방편이다. 인욕과 하심이 내 길을 걸다보면 마음은 망망대해가 되어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한양스님은 평소 부처님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를 강조했다. 참선, 참회, 명상, 예식, 가람수호. 재능이 있어도 모두 갖추어 놓지 않으면 행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행자·사미(니) 기간은 절집안 안팎의 모든 일에 대해 부처님제자로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며 '중을 들이는데' 기간이다. 그러나 비구(니)계를 받아 스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가 완성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출가자들은 지계제일(持戒第一) 우바리존자의 말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심으로써 욕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걸림을 고고하게 찾아서 가라.'

이경숙 기자

큰 스님들의 행자시절

공양간에선 요리사 논·밭에선 농부씨 나무할때 일류 목수 염불할때 예식종장

지나간 학창시절이 나이가 들수록 세로새로 추억되는 것처럼 스님들 대부분은 백학강두진일로의 마음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하려 입산해 계를 받기까지의 행자시절을 잊을수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미와 비구의 구분이 분명치 않았다. 따라서 행자생활이 지금까지 6개월로 정해진게 아니라 스승이 '계 받아라'하기 전까지였으니 3년도 좋고 5년도 좋았다. 또 예전 큰 스님들은 말로 일일이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행(行)으로 보여줬고 행자들은 큰 스님들의 언행을 본으로 삼고 따르고자 노력했다.

원담스님(72·덕송총림 방장)은 행자생활을 5년, 석주스님(90·칠보사 조실)은 6년동안 행자생활을 한 후 비로소 계를 받을 수 있었다. 도견스님(74·해인사)은 17살때 오대산 풍관암에서 지림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는데 은사스님이 행자문을 열어주곤 했고 천수경을 외느라 밤을 태워서 행자가 몸뚱이를 모를때 웃으면서 '잘못하는 것은 앞으로 잘할 근본'이라고 다독여 일생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곡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한 해암스님(79·조계종 원로회회장)이 맨 처음 한것이 공양주. 출가한 날부터 밥을 두르고 밥을 지었다. 밥짓는 양을 잘 맞춰 나중에는 쌀 곳간의 미감일까지 봤고 신발도 손수 지어 신었다. 고된 행자생활중 '도를 타려고 왔는데 탄 스님들 공양준비만 하다가 시간 다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그길로 떠나 암자로 정진하려 간 예피소도도 들려준다. 20세때 만일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서옹스님(87·고불총림 방장)은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 모시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없어 얼음을 깨고 음식을 준비하곤 했지만 스님 밑에서 공부하다 후시 실수라도 하면 하루일 다하되 난뒤 참회의 절을 하느라 꼬박 밤을 지새웠다. '행자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요. 제때 발심한 인연이 어우러져 총명해 선지식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었으니까'고 말한다.

동산스님 밑에서 3년간 행자생활을 하고 고산스님(65·쌍계사 조실)은 처음에는 출가를 잘 허락하지도 않았으며 일단 출가하면 공양주에서부터 채공, 발갈기에 서부터 기본교리 등 모르는 것이 없는 만능인이 되어 있어야 사미계를 주었다고 회상한다. '공양주 일과 예불 염불, 사시, 뒷사람삼기, 아랫사람 다스리기, 농사짓기 빨감하기 예의도며 등에 모두 능통해야 대중의 사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양간에서는 일류 요리사, 논밭에서는 농부씨, 나무할 때는 일류 목수와 나뭇꾼, 염불할 때는 예식종장. 이렇게 엄격하게 단련이 될 때 최고의 선사, 법사, 율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자들은 공양주, 청소, 빨래, 논밭일 등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수행의 기본이 되는 인욕과 하심을 쌓는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 출가하여 부처님밑에서 수행한다. <집이합경> 수행자가 일곱가지 법을 성취하면 현재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고 번뇌를 없애려 하면 곧 없앨 수 있게 되느니라. 그것은 법을 알고 이치를 알며 때를 알고 자기를 알며 만족할 줄 알고 대중가운데 들어갈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중일야합경>

경전속 출가인의 자세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은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도 매이지 않고 업도 짓지 않는다. <사십이장경> 출가해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아로 정진해 머리에 붉은 불을 구하는

“法の 이치 알아 열반의 경지로...”

것같이 해야 한다. <미륵성불경> 수행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을 말하리니 명심하라. 비구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화순하고 위 아래가 서로 받들며 선행을 쌓고 악마에게 몸을 주지 않아야 하느니라. 서로 화합하여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음을 향해 노력하되 계오르지 않아 악마에게 굴복당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세상일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영화에 힘쓰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잡된 서적을 읽지 말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잠을 많이 자지 말고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세상의 음양수술을 배우지 말고 남에게 가르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수행에만 힘써야 하느니라. <중일야합경>

출가수행자는 여인을 마주보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지도 말라. 만약 함께 이야기할 때는 똑바른 마음으로 '나는 출가 사문이다. 흐린 세상에 태어났으니 연꽃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라. 나이 많은 여인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손위가 되는 이는 누님으로, 나이 적은 이는 누이동생으로, 어린이는 딸과 같이 생각하여 제도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십이장경>